

이재용 부회장님께,

삼성그룹은 글로벌 사회에 더 나은 기여를 하겠다는 회사의 철학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오랜 기간 입지를 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치는 삼성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저희는 삼성그룹이 글로벌 기후 리더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특별보고서는 지구에서의 안정적 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까지 14%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탄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IPCC 보고서는 인류가 즉각 대응에 나선다면 기후위기가 초래할 불가역적인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변화에 관건이 달린 것은 에너지 부문입니다. 석탄과 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에 전 세계가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4에 달합니다.

기업들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자사 웹사이트에 명시했듯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할 기회들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주요 전력 다소비 기업으로서, 그리고 금융 자회사들을 보유한 특별한 지위를 발판으로 전력 시스템 전반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명료합니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의 경우 2035년, 전 세계적으로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유럽, 중국에서 RE100을 선언하는 등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은 바 있습니다. RE100 선언을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장 적용하는 것도 반드시 후행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15개 기업을 포함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이미 RE100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거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저희는 삼성그룹이 다음 사항을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신규 및 기존 석탄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금융 자회사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탈석탄 금융 정책 수립 및 이행.** 석탄은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손꼽힙니다. 각국 정부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이미 석탄 자산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만 중단한다는 피상적인 탈석탄 정책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현재 석탄 발전사업이나 광산 사업에서 매출의 30%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겠다고 하며 그나마 나은 탈석탄 정책을 설정했지만,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후 대응 영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삼성그룹이 파리협정의 기후 목표에

맞춰 석탄 관련한 자산을 처분할 계획을 세우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전환하기를 요청합니다. 삼성생명, 삼성자산운용, 삼성증권, 삼성카드를 포함한 삼성그룹의 금융 자회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정책을 수립한다면, 이는 환경적 편익은 물론 한국의 산업 수준을 증대하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줄 것입니다.

2. **2030년까지 국내 전체 공급망 및 운영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공개프로젝트(CDP)에 삼성전자가 2020년 응답한 내용으로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기 수요 중 7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되며, 이 중 대부분은 석탄과 원자력, 가스 발전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의 자회사들은 추적 가능한 6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직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한국에서 삼성의 자회사들이 야심 찬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장애물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직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전력시장 구조는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후 미래에서도 큰 위험이 될 것입니다. 삼성과 시민사회는 협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전력시장 규제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들에는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자들에게는 올바른 재생에너지 가격 지표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3. **바이오에너지 원료 사업 철수와 팜유 생산·무역 사업 확대 및 투자에 대한 즉각 중단 선언.** 기후 전문가들은 바이오매스가 연소 시 석탄 같은 화석연료보다 원단위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이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산림파괴 또한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과 생물 다양성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삼성물산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중요한 결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삼성물산이 바이오에너지 원료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일본의 이렉스(EREX)사와의 합작 사업과 같은 신규 바이오매스 원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삼성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인권 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팜유 생산·무역 사업 확장 및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에는 역사적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전 세계 탄소중립 실현에서 기후행동의 리더로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보다 깨끗한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는 여정의 책임은 삼성그룹의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지구의 날에 국제적인 비영리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삼성그룹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주 뒤인 5월 13일까지 답변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ignature]

AnsvarligFremtid

Asia Energy Network (AEN)

Asian Peoples'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APMDD)

Australian Forests & Climate Alliance

Biomass Action Group

Blue Dalian

Climate Energy Finance

Comité Schone Lucht

Friends of the Earth US

Forests, Climate and Biomass Working Group

Fundacion Chile Sustentable

Green Longjiang

Instituto para el Futuro Común Amerindio
IFCA

Japan Center for a Sustainable Environment and Society (JACSES)

Mekong Watch

Mighty Earth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o Electricity from Forests

Oil Change International

Pivot Point, A Nonprofit Corporation

Reclaim Finance

Scholar Tree Alliance

Snow Alliance

The Sunrise Project

Wild Europe Foundation

Plantation Watch

HUTAN Group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전환연구소

미세먼지해결 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어필

충남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충남행동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